

지역 소식통

정읍시,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무이자 대출

정읍시가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인 '나는 가장이다'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한부모가족들의 주거자금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나는 가장이다' 주거자금 무이자 소액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입차 계약 시 필요한 주거자금을 무이자로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한 가구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으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입차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가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되며, 오는 11월부터 대출금이 지원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아동비만 예방 교실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성장기 아동의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보건소는 수곡초등학교와 덕천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 1회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한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최근 서양화된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으로 아동·청소년 비만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운동지도자와 영양사가 주 1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동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놀이교구 등을 활용해 진행된다.

특히, 프로그램 시작 전 개별 체성분 분석을 통해 사전·사후 비만도를 측정하고 건강 습관 형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마을 주치의사제' 본격운영

## 고창군, 어르신 대상... '농·어촌 의료서비스 강화'

민선 8기 심덕섭희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마을 주치의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주치의사제'가 이날부터 본격 운영된다.

마을 주치의사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과 공중보건의사 44명 13개팀으로 꾸려졌다.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기초 검사와 보건교육 등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150개소를 선정해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602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주 2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 혈당 측정, 건강상담, 치매인지 선별검사, 영영별 보건교육 등 다양한 보건지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군보건소는 마을주치의사제 운영에 앞서 이달 초 사업관계자들과 간담회 및 발대식을 갖고 마을주치의 제도의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과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고창 만들기에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추석명절 농특산물 우체국쇼핑몰 판매 성황

### 부안군, 가을꽃계 · 뽕주 · 뽕편육 등 지역 대표상품 2억원 판매

부안군과 부안우체국은 추석명절을 맞아 실시한 우체국쇼핑몰 '부안군 추석 브랜드관'에서 상품판매 성황을 이루어 2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우체국쇼핑몰 '부안군 추석 브랜드관'은 코로나19 및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축·어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천년의송씨쌀, 꽃계, 뽕주, 뽕편육 등 부안지역 46개 업체

183개 상품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결과, 1만3천여건, 2억1천1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특히, 이번 판매상품 중 '가을꽃계'는 하루만에 3천여건의 주문량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소비 시즌을 앞두고 청정부안 가을 송곳계의 전국적인 홍보와 함께 꾸준한 소비가 기대된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추석 선물 할인행사로 소비 위축으로 어려

움을 겪는 지역 농·축·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관료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우체국(국장 황현중)은 작년 11월에 부안지역 농수축산품 판매대행 업무 협약 체결하였으며,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올해 현재까지 7만5천여건 약15억원의 상품을 판매하여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시민 신뢰 회복 위한 부패 방지 교육 가져

정읍시가 다양한 청렴 사례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정읍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13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직자강을 확립하고 시민 중심의 청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공직자 복무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부정행위를 바로잡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교육에는 안영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나섰다.

안영진 강사는 공직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와 부패로부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탁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례와 갑질 예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및 교육자



료 제시를 통해 직원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화수 시장은 "정읍시 청렴도 하락으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더 소중히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탁 직원은 무조건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고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는 직

원이 대우받는 인사를 시행해 공정하고 깨끗한 정읍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가족 채용 비리, 이해관계자 수의 계약,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개인 간의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13일 간부회의에서 "각종 허가 사항 등 주민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행복도를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 "군민행복은 빠른 민원해결"

### 심덕섭 고창군수, 간부회의서 공직자 마음가짐 강조

심덕섭 고창군수가 13일 간부회의에서 "각종 허가 사항 등 주민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행복도를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심 군수는 "군민행복은 민원해결에 있고, 활력고창은 노을대교 등 대형프로젝트에 있다"며 지난 7월 취임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어려움을 해결해 앞장서 오고 있다. 지난 조직개편에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종합민원실을 기존 5급(사무관) 과장에서 4급(서기관) 실장으로 승격시켰다. 또 종합민원실 내 '허가팀'을 신설해 모든 민원처리를 원스톱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심 군수는 "대부분 복합민원은 인허가 전담부서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고창군의 모든 공직자는 민원인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시더라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선 농산물·식료품 등 밥상물가 모니터링, 제4회 모양성제 등 가을축제 적극 홍보사항 등을 논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최고 숙련기술인 7개 분야 명장 접수

정읍시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읍시 명장(明匠)' 발굴에 나섰다. 지역산업을 이끌어 온 명장을 발굴·선양해 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인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확립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명장은 기계, 섬유, 농림, 공예, 조경, 요리, 이·미용 총 7개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 중에서 단 한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9.5.) 기준 7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한 직종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이여야 한다. 특히, 숙련 기술 보유 정도가 높으며 지역 숙련 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청 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신청은 부문별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와 제출서류,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 명장으로 선정되면 정읍시 명장 증서와 함께 명장인증명패를 수여하고, 1년에 300만 원씩 2년간 연구활동비가 지원된다. 더불어, 정읍시 홈페이지와 홍보 책자 등에 게재되고 관로 분야 지원 등 필요한 분야를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